



사전예방 체제로의 사고전환 긴급요



정대춘
(점검 1부장)

I. 기업경영은 위험과의 투쟁

오늘날 우리들은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특히 기업활동에서는 많은 사람과 사물사이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산재된 위험이라는 적과의 투쟁에서 공수의 치밀한 대응능력을 갖추므로써만 국제경쟁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위험관리경향은 보험관리측면에서 한발 더 진보하여 기업경영 전부를 위험관리로 간주하는 거시적인 추세이며 경제적 진보란 위험을 감당하는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며 경영의 중요목표 또한 기업이 각종 위험을 적절히 감당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위험을 제거하는등 마이너스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플러스적 요인과 관련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

는 창조적 위험관리로 새롭게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결국 위험관리란 기업의 자산과 수익에 위험을 가하는 제반 위험을 발견, 측정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사전사후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지만 산업의 급격한 발전, 정보와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기업체제의 취약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위험관리수준은 사고 발생 이후에 수습책으로서 반응을 나타내는 소극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위험중에서 다소 과소평가되고 있는 화재와 관련된 산업체의 위험관리실태에 대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방재와 보험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II. 공장화재의 일반현황

경제성장에 따라 규모의 대형화 업종의 다양화는 물론 최근 10년 동안 물건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화재발생건수는 10%,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8%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장화재 사고는 타업종에 비하여 매우 크지만 생산및 수출을 둔화시키는 등의 간접피해의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간접피해액은 직접피

해액의 3~5배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7대도시의 특수건물중 공장화재건수는 전체의 30%이나 재산피해는 70%를 점유하여 타업종에 비해 피해비중이 매우 높으며 공장건물의 32%정도가 70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관리적 보원을 필요로 하며, 공장건물의 내화도는 내화구조(1급) 18%, 불연구조(2, 3급) 70%, 가연구조(4급) 12%로 구조적으로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많으며 위험분산도는 1건의 공장전체가 하나의 위험으로 간주되는 것이 69%, 두개의 위험으로 분산되는 것이 15%, 세개 이상의 위험으로 분산되는 것이 16%로 위험분산도가 낮은 편으로 대형화재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계약상태도 80~90%로 완벽한 보험관리에 미달되고 있다.

7대도시의 특수건물지역 공장물건의 이재율(26%)은 기타 지방도시의 공장의 이재율(46%)보다 낮은 상태로 지방도시에 공장건물이 많이 신축되는데 반해 위험관리 인식능력, 소방력이 열세임을 나타내고 있다.

III. 화재발생의 원인적 현황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을 불완전행위 (Software)와 불완전조건 (Hardware)으로 분류하면,

1. 불완전 행위(인위적, 제도적, 관리적)

가. 경영자측은 산업안전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장의 토대로 보지 않고 당장의 원가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인식.

나. 의사결정계층의 위험관리 인식부족과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일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지식 교육훈련이 부족하여 방재태세가 미흡.

다. 기업내 안전관리업무의 체계화·전문화가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방재기능이 미약함.

라.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연구및 지도활동이 부진하며 보험자의 위험관리 인식부족으로 손해방지활동이 미흡.

마. 방재대책에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은 관주도형의 피동적이고 타율적인 경향.

바. 안전관계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반복사고가 발생되며 법규상 기준 자체가 미흡하여 새로운 공성이나 소재에 대한 안전기준 연구가 매우 부진함.

2. 불완전 조건(시설, 환경, 구조등)

각종 방재시설의 개선율은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개선이 곤란하고 기술의 부족등으로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가.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전기, 화공, 위험물시설은 최고의 바람직한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

나. 연소확대 방지시설은 45%, 피난시설은 87%

다. 경보시설 26%, 소화시설 94%.

라. 소화활동상 필요한 시설 77%.

마. 각종 방재시설의 기자재등의 불량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임.

바. 신축시 설계시공단계에서 근원적으로 화재취약요소가 일부 발생되고 중, 개축시 보완적이고 종합적인 방재대책이 소홀.

이상에서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된 공장화재 발생의 원인적 실태는 공장의 방재시설은 타 업종보다 불량한 상태이며 특히 화재발생의 주요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나 잠재되고 과소 평가된 조그마한 위험이라는 불안전조건과 인위적인 위험관리 인식부족으로 인한 교육훈련 부족, 무지등의 불완전행위가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경보시설과 연소방지시설의 높은불량률은 화재발생시 조기 진화에 실패하고 연소확대로 결정적인 대형피해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화재

발생시 방재시설의 이용률은 시설의 불량,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35%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대부분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공장의 대형화재원인은 연소확대 방지시설 불량, 가연성 내장재와 상품의 위험분산도가 낮음, 조기진화태세 불비 등으로 연소확대를 지지 못하는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IV. 전망

선진국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증가율은 GNP성장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70년대의 고도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80년대에 와서 각종 공해및 산업재해의 다양하고 빈번한 발생.

○ 50~70년대 건축시설물의 노후화 진행.

○ 기존방재시설의 불량률이 높은 상태와 효율적인 위험분산도가 낮은 상태의 구조적인 취약성.

○ 지속적인 산업발전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국가의 목표는 업종의 다양화 첨단산업등 새로운 공정의 개발, 규모의 대형화.

○ 전기, 유류, 가스등 소비량의 증가와 생활향상으로 도덕적 위험의 증가.

○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인식부족과 체제가 정립되지 않고 위험관리에 대한 민간전문기관의 활동이 미약.

상술한 취약요소에 대한 대응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화재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될 것이며 또한 대형화가 예상된다.

결론으로서 국제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재보험 수지개선, 국내적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이윤과 고용창출로 안정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기업은 위험관리 위주의 경영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후사고 수습위주에서 사전 예방체제로 정부주도의 타율성에서 민간의 자율적 관리체제로 점차 발전되어야 하며, 위험관리분야의 전문기관을 양성함으로써 안전기준의 마련, 방재지식과 정보 제공, 전문가 양성, 효과적인 방재대책설비와 위험관리 기법의 개발을 통해 기업의 부담도 경감토록 적극 지원해 기업의 개선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무수히 많은 위험이라는 적과 투쟁해서 요행과 설마심리를 배제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위험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